

류현진, 시즌 10승·통산 50승 채울까

생애 첫 올스타전 출전 유력
23일 콜로라도와의 홈 경기
28일 쿠어스필드 원정 경기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등판 일정을 하루 미뤄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나선다.

이번 로테이션 조정은 류현진의 향후 일정과 올스타전 출전 등에서 꽤 많은 변화를 부른다.

오렌지카운트레지스터의 빌 플링킷 기사는 2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홀리우 우리아스가 21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에 선발

등판한다. 콜로라도와의 홈 3연전(22~24일)에는 워커 블러, 류현진, 마에다 겐타가 차례대로 등판한다"고 전했다.

이날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현지 취재진에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 조정에 대해 알렸고, 플링킷 기사는 구체적인 등판 일정을 정리해 SNS에 올렸다.

다저스는 14일부터 7월 1일까지 휴식 없이 '18연전'을 치른다.

플링킷 기사는 "류현진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 등판하지 않는다. 추가 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경기에 등판한 뒤(7월 10일에 열린) 올스타전까지 닷새를 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저리그는 투수 보호를 위해 '올스타전 직전 경기에 등판한 투수는 올스타전에 출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올스타에 선발된 투수가 직전 경기에 등판하면 대체 선수를 선발한다.

류현진이 만약 내셔널리그 올스타에 선발되고 7월 8일 샌디에이고전에 등판하면, 올스타전에는 등판하지 못하고 식전 행사 등에만 참가해야 한다.

그러나 다저스가 우리아스를 한시적인 선발로 투입해 로테이션을 조정하면서 류현진의 생애 첫 올스타전 출전이 유력해졌다.

류현진은 20일 현재 9승 1패 평균자책점 1.26의 압도적인 성적을 올리고 있다. 현지 언론도 류현진의 올스타 선발을 낙관하고 있다.

류현진은 23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콜로라도를 만난 뒤, 28일에는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에서 콜로라도와 재격돌할 전망이다.

콜로라도에는 '류현진의 천적' 놀런 에러나도가 있다. 에러나도는 류현진에 상대로 19타수 11안타(타율 0.579), 3홈런, 7타점을 올렸다.

에러나도는 올 시즌에도 19일 현재 타율 0.327, 18홈런, 67타점으로 활약 중이다.

류현진이 23일 콜로라도와의 홈경기에서 에러나도를 제압하며 시즌 10승과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50승을 채우고, 28일 쿠어스필드 원정 경기도 훌륭하게 치르면 그의 가치는 더 상승한다. 연합뉴스

'서핑의 메카' 제주오픈 국제서핑대회

6월 21~23일 중문색달해변
남녀 프로 숏보드 등 12종목
토요 서퍼스 나잇 등도 운영

서귀포시 서핑협회가 주최·주관하는 2019 제주오픈 '코리아 서프 프로 랭킹스' 국제서핑대회(위원장 이종우)가 21~23일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국내 서퍼들에게 최고의 포인트로 거점화되어있는 '서핑의 메카' 중문색달해변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대규모 서핑대회다. 참가 규모 등 선수 등 800여명에 이른다.

대회 기간에는 국내 프로, 아마추어, 동호인 선수 등이 참가해 남녀 숏보드 프로, 남녀 롱보드 프로, 남녀 숏보드 아마, 남녀 롱보드 아마, 남녀 숏&롱 비기너, 내외국인 혼합, 주니어 등 12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펼친다. 이 중에서 프로 숏보드 남자, 프로 숏보드 여자, 프로 롱보드 남자, 프로 롱보드 여자는 신설된 종목이다.

특히 대회장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만이 아니라 가장 트렌디한 브랜드들의 전시장으로 각종 신제품 전시와 판매, 이벤트도 마련된다. '토요 서퍼스 나잇'에는 사우스카니발 밴드의 공연이 예정됐다.

서핑은 현재 국내 문화트렌드와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레저 스포츠다. 대한서핑협회 추산 서핑인구는 2014년 4만명에서 2017년 20만명으로 3년새 5배나 늘었다. 서핑 붐을 타고 서귀포시 중문을 시작으로 전국 해수욕장으로 서퍼들이 몰려들고 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 서핑이 처음 올림픽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이 같은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 010-4096-0267. 전선기자 sunny@ihalla.com



"아무 데도 못 가" 20일 브라질 벨루오리치치의 미네이랑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남미축구연맹(CONMEBOL) 코파 아메리카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공을 차고 있다. 이날 아르헨티나는 0-1로 콜러가던 후반 12분 터진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의 페널티킥 동점골로 파라과이와 1-1로 비겼다. 연합뉴스

아르헨티나, 16강 진출 '실날 희망'

FIFA 여자월드컵... 스코틀랜드 3-3 무승부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이 후반 막판 20여분 동안 3골을 몰아치는 기적을 펼치고 극적인 무승부를 따내 사상 첫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16강 진출의 '실날 희망'을 살렸다.

아르헨티나는 20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여자월드컵 D조 최종전에서 스코틀랜드를 상대로 후반 추가시간

터진 페널티킥 동점골을 앞세워 3-3으로 비겼다.

아르헨티나는 2무1패(승점 2) D조 3위로 조별리그를 마쳤고, 여자월드컵 본선 무대를 처음 밟은 스코틀랜드는 1무2패로 최하위를 확정해 탈락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21일 치러지는 E조와 F조 최종전 결과에 따라 각 조 3위 6개 팀 가운데 성적이 좋

은 4개팀에 주어지는 16강행 티켓을 따낼 가능성이 생겼다.

E조 최종전은 카메룬-뉴질랜드(이상 승점 0), F조 최종전은 칠레-태국(이상 승점 0)이다.

두 경기 모두 승리 팀이 나오지 않고 무승부로 끝나면 아르헨티나는 조 3위 팀 가운데 4위를 차지하게 돼 탈락이로 16강에 오를 수 있다.

FIFA에 따르면 역대 여자월드컵에서 세 골차로 뒤지고 있다가 무승부를 거둔 팀은 아르헨티나가 처음이었다. 연합뉴스

KLPGA 신인 이승연 트리플보기도 선두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처음 발을 디딘 새내기 이승연(21)이 비씨카드·한경 레이디스 컵 첫날에 트리플보기를 적어내고도 단독 선두에 나섰다.

이승연은 20일 경기도 포천의 포천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7언더파 65타를 쳤다.

2위 그룹을 2타차로 따돌린 이승연은 4월 백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제패 이후 2개월 만에 2승 고지에 오를 디딤돌을 마련했다. 이날 이승연은 버디를 10개나 잡아냈다.

18홀에 버디 10개는 지난달 E1 챔피언십 오픈 1라운드 때 이소미(20) 이후 이번 시즌에 두 번 밖에 나오지 않았다.

10개의 버디 가운데 그린 밖 6m 거리에서 퍼터로 굴러 잡은 7번 홀(파3)을 뺀 9개가 5m 이내에서 나왔을 만큼 이승연의 샷은 정교했다.

2번 홀(파2) 트리플보기가 내내 아쉬웠다. 2번 홀에서 이승연은 티샷 실수로 두 번째 샷을 산등성이에서 쳐야 했다. 공이 놓인 자리가 비탈인 데다 울퉁불퉁했다. 어렵사리 친 볼은 오른쪽 숲으로 날아갔다. 발타를 받고 다시 쳤지만, 공을 그린에 올리지 못한 이승연은 5온 2퍼트 7타를 적어냈다.

이승연은 "트리플보기는 개의치 않았다"면서 "우승하려면 버디가 많이 필요하다. 내일도 버디를 많이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네이처 벨리 클래식 대회 단식 본선 2회전을 마친 체코의 카롤리나 플리스코바(3위·왼쪽)와 일란성 쌍둥이 언니 크리스티나 플리스코바(112위)가 경기를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프로테니스 사상 첫 쌍둥이 대결

단식 본선서 '2분 언니' 승리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사상 최초로 단식 본선에서 일란성 쌍둥이의 맞대결이 펼쳐졌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WTA 투어 네이처 벨리 클래식(총상금 100만6263달러) 대회 사흘째 단식 본선 2회전에서 카롤리나 플리스코바(3위)와 크리스티나 플리스코바(112위·이상 체코)가 격돌했다.

1992년 3월생인 둘은 크리스티나가 2분 먼저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다. 키는 동생 카롤리나가 186cm로 2cm 더 크고, 언니 크리스티나만 왼손잡이로 차이가 있어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나마 구분이 가능했다. 또 유니폼 색깔도

언니가 흰색, 동생은 청색으로 달랐다. 경기에서는 순위가 함참 아래인 언니가 2-1(6-2 3-6 7-6(9-7))로 이겨 8강에 진출했다.

둘은 WTA 투어 단식 본선에서는 처음 만났지만 이에 앞서 10차례 맞대결한 적이 있다.

주니어 시절이나 국제테니스연맹(ITF) 서킷 대회, 혹은 투어 대회 예선에서 10번 만나 5승 5패로 팽팽했는데 이날 결과로 언니가 6승 5패로 앞서게 됐다.

둘의 첫 맞대결은 14살 때인 2006년 주니어 대회였고 최근 경기는 2013년 투어 대회 단식 예선이었다. 2006년 첫 매치업과 2013년 최근 맞대결도 모두 언니가 이겼다. 연합뉴스

Good Morning Vietnam

Return to Paradise

제주 ↔ 베트남 왕복직항 전세기

하노이/장안/하롱베이 5일

8월 15일 899,000원

제주홍익여행사 746-2200 www.jejuhongik.co.kr

여행일정 Hot Place ★★★★★

세계자연유산 하롱베이(선상유람), 닌빈(장안) 유랑담사, 종유석동굴 티툼성, 수상인형극, 전신마사지 1회

특식 3회 : 파라다이스 뷔페, 씨푸드, 무제한 삼겹살

포함내역 왕복항공권, 4성급 2인 1실, 전 일정 식사, 차량료, 입장료, 해외여행 보험

불포함내역 가이드/기사 팁 \$50, 부가세, 개인 경비, 매너 팁